



선운산농협, 외국인 계절근로자 복분자 담금주 체험

선운산농협(조합장 김기욱)은 지난 18일 선운산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참여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창군의 대표 특산물인 복분자를 활용한 전통 담금주 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현재 수확철을 맞은 복분자의 다양한 활용법을 직접 배우고 체험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농산물에 대한 이해와 애착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근로자들은 자신이 수확에 참여한 복분자로 담금주를 만들며 농산물의 가치와 쓰임새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외국인 근로자는 “복분자를 직접 따면 서도 단순히 열매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재해 구호 전문인력 양성 교육

남원시는 19일 시, 읍·면·동의 재해 구호 담당 공무원 24명을 대상 '재해 구호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재민 구호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아래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교육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라권 전문인력양성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우석대학교 평생 교육원이 △선진국 재해 구호 법령 및 사례 소개 △재난 유형별 실무자 임무 △재난 대응 가상 모의훈련 및 응급처치법 △집단구호 및 물품관리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수지면, 경로당 식사제공 시범운영

남원시 수지면에서는 지난 18일 2025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로당 주7일 식사제공 시범사업의 실효성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수지면 용강경로당과 남창경로당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관계자들은 경로당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어르신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근 노인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건강관리와 영양공급의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덕과면, 폭염 대비 안전사고 예방교육

남원시 덕과면 행정복지센터는 성월계 변장이 노인일자리 참여자 20명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 건강관리법과 응급상황 대처 요령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유익한 교육을 진행, 참여자들로 부터 환영받았다.

이 자리에서 성월계 면장은 “폭염은 노년층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다시 태어나도, 저는 여행업을 택할 겁니다”

30년 외길 걸어온 모두투어 전주점 하현성 대표



“비행기만 타면 아직도 가슴이 뻑니다. 첫 여행을 떠나는 기분 그대로죠.”

전주시 평화동의 작은 여행사 사무실. 벽을 가득 메운 세계 각국의 사진과 기념품은 이곳 주인 하현성 대표의 지난 30년 여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는 지난 세월을 여행 하나에 모두 바쳤다. 수많은 여행객의 동반자로, 때론 안내자로, 때론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준 조력자로 살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묻자, 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오래 전에 한 아드님이 300만 원을 들여 부모님 효도 관광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여행을 다녀오신 어머니가 너무 감동하셔서 아들에게 3억이나 되는 집을 한 채 사주셨거든요. 그때 알았죠,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라고 하고요.”라고 말했다.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여정은 백두산 여행이다. 그는 “단 두 번만 천지를 못 봤습시다. 손님이 저를 낚시 도사라 불렀다.”라며, 무려 47번이나 여행객 인솔을 했다.

백두산 천지 여행은 일기가 고르지 않기에 많은 여행객이 천지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런데도 단 2번만 못 보고 나머지는 좋은 일기 가운데 여행을 했다면 운이 너무 좋은 여행기획가라고 할 수 있다.

하 대표의 대표 여행작품은 미국 서부·동부·캐나다 10박 12일 패키지 여행이다. 본인이 직접 기획하고 본인이 직접 인솔하는 이 상품은 매년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는 “미국은 워낙 넓어서 보통 서부나 동부 중 하나만 가게 되잖아요. 하지만 두 번 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모든 하이라이트를 한 번에 담았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쇼핑보다 체험을, 음식 관광보다 현지의 문화를 중시한다. 그는 “진짜 여행이란, 돌아와서 또 가고 싶다는 말을 듣는 여행이죠.”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그의 여행업 인생에 가장 큰 위기였다.

그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엔 정말 막막했죠. 하지만

이 일이 제 인생이니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며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했다. 그리고 더 깊어진 고객들과의 관계는 그에게 또 다른 보람이 되었다.

그는 “진짜 여행다운 여행을 만들고 싶어요. 돌아와서 ‘정말 좋았다. 또 가고 싶다’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보람됩니다.”고 말했다.

하 대표의 또 다른 특기는 계절별 맞춤 여행이다. 그는 “여행은 타이밍이예요. 같은 곳이라도 언제 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되거든요. 30년 동안 쌓인 노하우로 최적의 시기를 추천해 드려요.”라며 6월에는 북유럽의 백야를, 8월에는 아프리카의 대자연, 10월에는 캐나다와 미국의 단풍을 제안한다.

지금도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에 오르는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초행길을 나서는 여행자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다시 태어나도 여행업을 하겠냐”는 질문에 그는 “당연하죠,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입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라고 답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다. “가슴이 뻑날 때, 떠나세요. 그게 진짜 여행의 시작입니다.”

/이만호 기자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고창경찰서 치안현장 방문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19일 고창경찰서(서장 한도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치안현장 간담회는 평온한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민·경 치안협력에 유공한 경무계 경찰장 최재혁,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 및 행정발전에 기여한 수사지원팀 경사 김가희, 카드발급 사정 보이스포싱을 예방해 사회 안전에 기여한 모양자구대 순경 최은규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서 지역축제 등 도민들이 직접 치안현장을 접할 수 있는 분야들을 점검하며, 교통이나 서민 대상 금융범죄, 스톱킹 범죄 등 민생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분야 등 현장의 흐름과 상황을 살펴보고 주민들과 경찰의 의견을 경청해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제대로 된 치안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보다 안전하고 평온한 지역사회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항상 주민들의 눈높이와 관점에서 생각하고,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경찰서장, 장마철 자연재난 대비 현장점검

부안경찰서(서장 이영후)는 6월 장마로 인해 단기간에 집중호우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됨에 따라 부안군 일대 침수 취약지역 및 산사태 우려지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침수 발생지역과 산사태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시설물 피해와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황재현 장수경찰서장, '재난안전 직무교육' 실시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는 19일,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경찰서장 주재로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직무교육은 경찰의 재난 대응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대응 절차와 안전 수칙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최근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경찰의 현장 대응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교육은 실질적인 대응 능력 제고에 큰 의미가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실버케어 실무자 양성' 수료식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시장 정성주)는 지난 18일 교육생 13명을 대상으로 '실버케어 사회복지실무자 양성과정'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일 4시간 씩(월~금) 진행됐다. 실버케어 사회복지실무자 양성교육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구인 증가와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실무 경험 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단절여성 구직자들의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고용 안정화로 경력이음을 위해 진행됐다.

올해 교육과정은 사회복지 현장 실무 능력을 배가시키고자 관내·외 재가복지센터 7개소, 주간보호센터 4개소,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사회복지기관의 현장실습을 강화했으며, 기관평가 실무교육, 어르신 인지·신체 기능 향상 프로그램 기획·운영, 요양서비스 사례관리, 장기요양보험 시스템 교육 등으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했다.

/김제=곽도태기자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평화통일포럼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가 19일 전주시 치명자(성지) 평화의전당에서 '안보환경 대격변기의 지역사회 통일자문건의 방향'을 주제로 2025년 상반기 평화통일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의 통일 담론을 형성하고,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정책 건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순정목 민주평통 통일안보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전 통일연구원장이자 민주평통 상임위원인 전성훈 박사가 기조발제를 맡아 '분단 80년의 시점에서 본 국제질서의 변화와 대북정책의 진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전 박사는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은 만큼, 지역사회가 통일자문 활동을 보다 실질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통일·대북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지역 차원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서남상의, '정읍愛 주소갯기 운동 함께하기' 결의

전북서남상공회의소(회장 최종필)는 지난 18일 임시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정읍愛 주소갯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제25대 의원 72개 전 회원사가 직접 참석 및 서면결의 형식으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읍시 주소갯기를 홍보하고, 특히 관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소이전을 권장하기로 했다.

최종필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안구 감소는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라며 지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회원사 전체가 '정읍愛 주소갯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3



년이 경과 됐음에도, 여전히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전국산의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원광보건대와 '맞손'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종용)은 19일 무주 지역의 복지 향상과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원광보건대학교와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이 손을 맞잡고 뜻깊은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원광보건대학교 전공연계 봉사활동으로 재학생들이 직접 무주 지역을 찾아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했다. 미용 봉사, 음료 제공, 바이탈 체크, 안경 처방, 비즈 체험, 피부 관리(마사지), 물리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은 복지관 이용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종용 관장은 “원광보건대학교 학생들의 진심 어린 참여가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다”고 밝혔다. 원광보건대학교 관계자 또한 “학생들에게는 현장 실습이



상의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실천해 나간 것이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성 기자